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 하여

고난주일 금요일(13일)은 금식일로 선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절이 박두했다.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절은 그 해 춘분이 지나고 만월(full moon)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된다. 그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고난주간(passion week)으로 지켜 왔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행적들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산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 금요일(13일)은 해가 있는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된다. 기독교 신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한주간 동안은 결혼식이나 기타 육신적 오락을 절제해 왔다. 금식한 금식미 헌금은 부활주일에 특별 선교헌금으로 바친다. 금요일 오후 9시에는 교회에서 연합다락방 모임을 갖는다.

부활절(15일) 새벽예배는 한티공원에서

- 주일 I, II, III 부 예배시에는 성찬식 -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영접키 위해 15일 부활주일 새벽예배(새벽5시)는 교회 뒷동산인 ‘한티공원’에서 갖는다.

그리고 주일 I, II, III 부 예배시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이 있다. 이날 찬양예배시에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특별 찬양예배로 드러진다.

컴퓨터 교실 개소식

-4월11일(수) 오후1시-

살롬 경로대학과 주부대학 특활시간을 통해 공부하게 될 컴퓨터 교실 개소식이 11일(수) 오후 1시 607호 앞 복도에서 열린다.

다양한 세미나 열린다

-목회자, 노년층, 주부를 위한 세미나 그리고 성경대학-

4월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세미나들이 열린다. 제1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이 9일(월)부터, 주부대학이 10일(화)에 그리고 살롬 경로대학이 12일(목)에 각각 개강한다.

각 과정에 등록 하실 분은 오늘 중으로 사무국에 입학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세미나의 안내서는 2층 현관 안내 테이블과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다.

서울교회 10년의 자취를 찾습니다

서울교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오는 5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다. 우리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우리교회 역사와 관련된 각종 사진을 제출받아 전시할 예정이며 사진과 함께 필름도 제출받는다. 제출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이 사진 자료 가운데 일부는 사진전과 더불어 교회 10년사 책에도 게재가 될 예정이다. 제출하실 때는 사진 뒷면이나 필름에 소속 교구 또는 교회학교 부서와 본인 이름, 촬영 일자와 장소, 내용 등을 적어 주시기 바란다. 수량은 제한 없으며 각 교구를 통해 제출하고 역사 편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사진은 전시회와 10년사 발간이 끝난 뒤 본인에게 반납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사무국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

유치부(706호)에서는 사용하던 장남감의 기증을 기다린다.

이번주의 말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아모스 3:2)

You only have I chosen of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therefore I will punish you for all your sins(Am 3:2)

지난주 이모저모



남선교회 헌신예배



상담실 개소식



푸른동산 가꾸기 - 한티공원



식목일 기념식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44:1 - 8)



이중운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1. 행복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더욱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룬아'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출생했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창 25:26). 야곱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인 브니엘(창 32:22 - 32)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은 이름입니다. 또 여수룬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신 32:15, 33:5, 26). 속이는 야곱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은 그가 먼저 이스라엘이 된 까닭입니다.

야곱같이 거짓된 사람이 브니엘의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이 되고 그 결과 여수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여수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2절). 나오신 어머니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잘 아실 뿐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도와주시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도우실 것이고 그들이 봉사할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2.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3절), 물은 인류에게 차별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요 7:39).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고(속 13:1), 주홍 같은 붉은 죄도 양털 같이 씻김을 받습니다(사 1:18).

물은 피곤하고 지친 이들을 생기 있게 하고 새 힘을 부여줍니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광야에 강이 흐르는 생수의 강,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임하시므로 그 때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4절). 버들은 빠른 성장을 하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급히 성장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교회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5절). 교회가 마지막에는 세상을 석권하게 될 터인데 그때 많은 이들이 교회 문턱으로 몰려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되고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진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자신이 속하였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자신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기록까지 함은 맹세하는 일을 말합니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주권과 불가항력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존자 이시고 스스로 충만한 자이시며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로서 천사와 사람들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시 74:12). 우리가 그의 백성을 살면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6절) 다른 것을 희생시키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6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가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영원하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시고 인생을 찾으십니다(7-8절). 그는 말씀하시는 신으로 선지자를 보내시어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실되어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말씀으로 찾으셨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창 1:28)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인격적이며 약속을 주십니다. 그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고(사 55:10 - 11),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그것을 받는 사람과 그 말과의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효력의 크기가 좌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과 함께 현림하여 계시므로 말씀을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나 성령님에게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성령님으로 영감 되었고 계속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관되며 능력 있는 되는 것인 만큼 거기서 섭취하여 전파되는 부분적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며

지혜영 전도사

주님!
주님은 모태로부터 저를 택하여 주시고 일찍이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고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가운데 저의 모든 삶을 간섭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나이다.

시편 94편 17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저의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이즈음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때때로 육신의 피곤함이 나를 감싸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피곤한 육신도 감사할 뿐입니다. 저의 피곤함이 십자가에서 쫓밀과 같이 되신 주님의 몸만 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며 저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바로 전했는지...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취옵니다.

행여 라도 주님의 참사랑을 저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면 주여!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을 친히 권고하여 주옵소서.

생전에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돌아가서서는 인생을 구원하셨으며, 땅에 묻혀서 까지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연장 스케치

지역사회 복음의 새로운 전기가 된 식목일

우리 서울교회는 5일 식목일을 맞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접한 한티 공원을 푸른 동산으로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날 당회장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한티공원 광장에서 경건회를 가진 후 한티공원 곳곳에 산림청과 강남구청의 후원 하에 소나무, 산철쭉, 낙상홍 등 각종 묘목 6백여 본을 식수한 뒤 비료주기 등을 실시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당회장 이종윤 목사는 단순히 '나무 심는 날'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넓은 안목을 키울 것을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수치까지 제시하며 강조하셨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국회의원과 권문용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여 우리 교회의 식목일 행사에 대한 이곳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이번 행사를 주관한 스테반회 회원들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행사 현장 여러 곳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연 속에서 직접 나무를 심으면서 가족간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행복한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심은 나무에 명찰을 달아주고는 이마의 땀방울을 훔쳐내며 활짝 웃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을 교회에서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전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볼 수 있었다. 복음과 전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이것을 몸으로 실천한 우리 교회의 식목일 행사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모습이 아름다운 현장이었다.

김시환(편집부)

70인 전도보고

손대길(청년부)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된 이유는 어느 끈질긴 한 분의 전도가 매개가 되었다.

만약 그 전도자의 발걸의 섬김을 받지 못했더라면... 죄, 고통, 어둠... 그 끔찍함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안에서 이젠 나 자신 복음전도자의 발걸로 교회에서 쓰임 받고 있다.

주 앞에서 늘 부끄러운 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치역과 주변상가, 아파트를 돌며 복음을 전한다.

기쁨 속에서 매번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튼 이제 터를 넓혀냈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추수한 곡식들을 향해 달려간다. 혹 나중에 주께서 널 대치동에 보냈더니 도대체 내가 네게 보내준 양들을 추수 안하고 뭘 했느냐. 하는 책망 듣는 중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수고했다! 하는 주님의 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다만 부족한 중! 나 자신 오늘도 이구정 목사님을 비롯하여 70인 전도대원들과 함께 어디선가 그리스도를 모른 채 고통 당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나선다.

사순절의 기도

조명녀 권사(9교구)



2001년 새 성전시대에 새로운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키며 주님께서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시려고 순종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려고 온 밤을 세우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 큰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화복하지 못한 부끄러운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불신앙의 죄와 불순종의 죄, 불충성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에게도 각기 십자가가 있사오니 잘 지고 주님 가신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 가도록 굳센 믿음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성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새로왔어요. 한 식구로 융화되어갑니다.

박광식, 박현영 집사(1교구)

-다니다던 교회의 목사님께 반 허락을 받은 뒤 등록하셨다면서요.

* 작년 입당하던 12월25일 부터 서울교회를 다녔는데 1월첫째주에 두 딸(연정, 유린)이 초등부에 등록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때에배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실까 하고 설레면서 교회 다니길 거의 두 달이 지나서 전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후 반 승락을 받고 즉시 저희들도 등록을 했습니다.

-전도 훈련과 가정 사역 훈련을 받으셨지요?
* 예, 가정사역 교육을 받고는 아직 활용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전도 교육을 받고 첫 대상으로 신앙의 불모지인 친정에 가서 부모님을 믿도록 한 뒤 많은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았지요. 이제 두 남동생(박홍석, 박용표)가정만 남았는데 계속 전도 중이라 열매맺을 줄 믿고 있습니다.

-시댁 쪽은 어떠세요?
* 시댁은 모두 예수 잘 믿어요. 그 덕분에 낯설어 큰 신앙의 굴곡을 거치지 않고 꾸준히 온 식구가 신앙을 지켜왔고 신앙적으로 건강할 때 축적해둔 기도 덕분에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때에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일은?
* 결혼후 저의 신앙이 약할 때 남편이 크게 아팠어요. 기도원을 찾아 주님을 찾았는데 보이는 건 아픈 남편뿐이더군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더욱 크게 보여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새가족부에서 느낀 점은?
*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배워가면서 한식구로 융화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도사님의 말씀이 쉽게 다가와 잠자던 신앙의 한부분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람방-청년부

미래의 일꾼들

오늘날 교회에는 젊은이가 적다. 한국에 있는 대다수 교회가 그렇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 청소년 시절에는 어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믿음생활을 해왔지만 졸업 후 대학에 가거나 곧장 사회로 진출하면 사정이 사뭇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악이 관영한 캠퍼스와 사회에서 영적으로 버티려면 학생시절보다 훨씬 깊고도 입체적인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선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자상하게 훈계하고 지도해 주지 않는다. 때문에 대학부나 청년부에 모여야 할 젊은이들은 교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세상으로 달아난다. 순례자가 찾아간 우리 교회 청년부는 이러한 민족의 젊은이들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모임이었다. 청년부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조별 성경공부에 있었다. 조별 성경공부란 청년부원 대여섯 명을 한 조로 묶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 있는 자를 조장으로 세운 뒤 이들로 하여금 조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교구의 다락방과 비슷한 체제다. 조장은 다락방장과 비슷한 임무를 맡는다. 현재 교사 12명을 포함해 80명 가량이 출석하고 있는 청년부는 모두 9명의 조장이 섬기고 있다. 이 조장들을 다시 말씀으로 가르치는 조장공부 모임이 있다. 또 조장으로 섬길 만한 일꾼을 뽑아 말씀으로 양육하는 L.T.C 과정도 개설돼 있다. 이런 모임들을 통해 청년부원들은 각자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하며 믿음을 키워간다. 또 나라와 민족, 서울교회의 각종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사역 현장에 동참하기도 한다. 미래 다락방장과 미래 집사, 권사, 장로들이 바로 이 청년부에서 영적인 소양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청년부 회장인 이대중 형제는 "젊은 시절 누구나 겪는 고민들을 함께 털어놓고 서로 기도하고 즐거움과 기쁨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청년부로 모든 청년들이 오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주중 늦은 시각에도 수시로 모여 성경공부를 하는 이들의 열정을 보며 순례자는 서울교회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철 (편집부)



청년, 대학부 위주의 3부 예배 시작전 찬양의 시간

다락방 순례

6-7 다락방을 찾아서

서울교회는 큰 몸체의 말초신경, 혹은 모세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다. 말초신경이나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통해야만 각 부위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래야만 '살아있다' 라고 할 것이다.

6-7다락방을 찾은 기자의 느낌은 살아있는 다락방, 생명력 있는 다락방이었다.

이러한 다락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락방장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다락방장이신 이영옥 집사님은 각 다락방 식구들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연필을 드시고 꼼꼼하게 적어내려 가는 모습에서 다락방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각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알아야 하며 기도 중에 사랑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바로 사랑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다락방장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식구들의 서로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으신 송병도 성도님의 가정은 내외와 자부까지도 참석하셔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과 유아부의 부흥을 기도제목으로 삼으신 김계순 권사님, 교회와 먼 거리의 다락방이지만 매주 금요일 철야예배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 다락방장 권윤경 집사님 등 다락방 식구들의 헌신의 모습에서 청년의 때와 같이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다락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은경(편집부)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다락방

동정

- 이종윤 목사는 4월9일(월) 서울 강남노회 임원회, 12일(목) 오전 7시에는 연세조찬기도회를 각각 우리 교회에서 갖는다.
- 김복승 집사 (1교구) 한국감정원 중부지점장으로 취임
- 이정용 성도 (5교구) 주식회사 엘리코 전자 확장 개업 감사 예배 (4월 9일 16시)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유병옥 권사 가정 (8교구)
(은혜중에 장례를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 (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 (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인터넷방송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net>)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 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제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9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4. 탈북난민 보호 UN청원 1천만명 돌파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